

DSLR 배울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

카메라 브랜드별 DSLR 사진 강좌 진행, 이색적인 들사 기회도 풍성

국내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와 함께 '인 1카메라'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DSLR(디지털일안반사식 카메라)를 구입할 만큼 사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간다. 그러나 콤팩트 디카에 비해 DSLR카메라는 각종 메뉴화면과 조작버튼이 다양하여 처음 사용자들에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디지털 카메라 제조사 브랜드들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자신이 보유한 카메라 기종에 보다 특화된 촬영법을 배우고 싶다면 해당회사에서 운영하는 포토스쿨을 이용해 보자. 무료 혹은 실비로 전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재/박지연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캐논 디카 고객들을 위한 '캐논 포토 아카데미'를 강남 캐논플라자와 논현동 캐논플렉스 2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남 캐논플라자 포토 아카데미는 처음 카메라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강의, 플렉스 아카데미는 중급 이용자들을 위한 촬영강좌와 스튜디오 강좌 등 실기 위주의 강좌가 진행된다.

캐논코리아는 7월 캐논 포토 아카데미를 통해 영화 <거북이 달린다>의 스틸 작가와 함께하는 캐논 DSLR 특강 및 휴가철 콤팩트 카메라 사용법 등 다양한 사진강좌를 진행한다. 캐논 포토 아카데미의 모든 강좌는 캐논 정품 등록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강좌 내용 확인 및 수강 신청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니콘이미징코리아도 정품 구매고객들에게 제품 활용법부터 카메라 관련 이론을 배울 수 있는 '니콘 포토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니콘포토스쿨에서는 카메라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만족할 수 있는 20여개의 전문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 행사사진, 렌즈필터, 접사사진, 사진구성, 인물사진반, 풍경사진 등 특강도 진행된다. 니콘은 지방 거주 고객들을 위한 지역 순회 교육도 펼치고 있다.

삼성디지털이미징에서는 웹진인 줌인(www.zoomin.co.kr)을 통해 삼성 정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 기초강좌에서부터 DSLR 초·중·고급 과정으로 나눠 사용자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고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의 신설동과 부산점에서 동시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줌인을 통해 동영상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올림푸스한국도 '올림푸스 디지털 포토 아카데미'를 매달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DSLR

초·중·고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촬영 워크숍과 스튜디오 촬영 출사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달에 한번씩 '올림푸스 포토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다양한 생활 속 사진 접근법과 DSLR 카메라를 즐기는 인기 연예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생활 속 사진단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시그마 총판인 세기P&C에서도 매달 총무로 지점 4층에서 '세기포토스쿨'을 진행한다. 7월에는 지용현 작가의 '색채학과 SPP3.5 다루기'라는 주제로 시그마 정품 고객 대상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고객 대상으로는 박기덕 작가의 'DSLR 기초 강좌', 김미경 작가의 '인물중심 초급 사진학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세기P&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이밖에 소니코리아에서도 '소니 알파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DSLR 강좌를 들으면서 카메라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출사 이벤트에도 참가해 보자.

많은 카메라업체에서 산과 바다로 자연중심의 출사행사를 진행한다면 올림푸스한국은 이색적인 출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뮤지컬이나 연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촬영하는 행사가 그것인데, 보통 공연장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연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이들 문화출사는 실제 최종 리허설 공연 중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먼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스포츠 마니아라면 니콘이미징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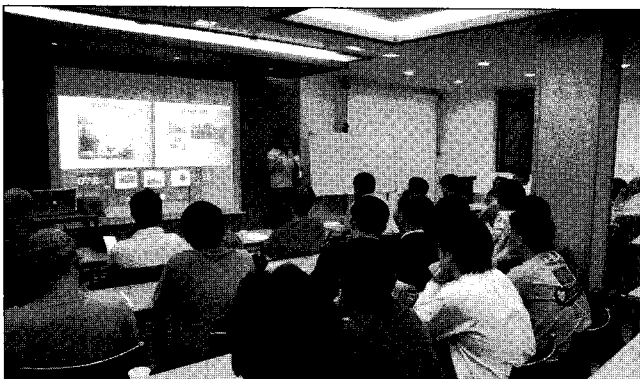
에서 진행하고 있는 '니콘 필드 포토그래퍼' 행사에 참여해 보자. 직접 필드에서 축구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일석 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 이란전에서 축구를 보면서 니콘 카메라로 경기 전 선수들의 생생한 훈련 모습을 카메라에 마음껏 담을 수 있는 '니콘 필드 포토그래퍼' 행사를 진행했다.



▶올림푸스한국에서 진행한 뮤지컬 삼총사를 관람 및 출사 이벤트에서 참가자들이 공연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시그마 총판인 세기P&C에서도 매달 총무로 지점 4층에서 '세기포토스쿨'을 진행한다. 6월 달에 열렸던 사진교실 풍경



▶올림푸스한국에서 진행한 문화 출사 이벤트 현장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모델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참가자들